



경기 안성 젖소농장 렘피스킨 발생

- 발생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 발생·인접 지역 7개 시군 일시 이동중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9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젖소농장(114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 검사 결과 렘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렘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 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 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성시 및 인접 6개 시·군(이천·용인·평택·천안·진천·음성)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0월 29일 20시부터 10월 30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인접 시군인 이천 및 진천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 안성·용인·평택·천안·음성은 위기경보 심각단계 기 발령

농식품부는 “경기도 안성에서 렘피스킨이 추가 발생한 만큼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매개곤충 활동성이 저하되는 겨울철(11월말)까지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송아지 등의 백신접종 일정 관리와 함께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방역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2531)
	구제역방역과	담당자	사무관	서두석 (044-201-253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